

美 기독교 구호단체, 텍사스 홍수 피해 복구 지원

최소 121명 사망자 확인, 161명 실종, 사마리안퍼스, 빌리 그레이엄 긴급 대응팀 공동 대응 나서

텍사스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100명 이상이 사망한 가운데,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와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BGEA)의 긴급 대응팀이 피해 복구와 구조 활동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기독교 여름 캠프에 참가했던 소녀들을 포함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는 집중호우로 시작됐으며, 폭우로 인해 발생한 급류가 커 카운티(Kerr County)를 비롯해 버넷(Burnet), 켄달(Kendall), 트래비스(Travis), 톰그린(Tom Green), 윌리엄슨(Williamson) 카운티 전역에

서 인명 피해를 낳았다.

현지 당국은 7월 10일 기준, 사망자 수가 121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커 카운티 보안관실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수백 명의 요원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과달루페 강변에 위치한 ‘캠프 미스틱(Camp Mystic)’ 참가자들로 확인됐다. 1926년에 설립된 이 캠프는 매년 여름 소녀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와 자아 존중감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다.

캠프 측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실종 소녀들의 수색 작업을 위해 지역 및 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모든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지지를



사마리안퍼스 자원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samaritan purse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마리안퍼스 북미지역팀과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의 긴급 대응팀

(BGEA-RRT)은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지역 교회 및 비상대응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프랭클린 그래함 회장은 페이스 북을 통해 “커빌(Kerrville)의 교회에서 실종 소녀들을 기다리는 가족들과 통화하며 성경을 낭독하고 함께 기도했다”며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Kristi Noem)과 함께 기도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계속되는 강우로 인해 구조 작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수많은 가족들과 구조대원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커 카운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2일부터 계속된 폭우와 홍수로 인해 텍사스를 연방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구호 예산을 승인했다. 한편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대참사를 맞아 지난 6일 ‘기도의 날(Day of Prayer)’로 선포했다.

이미경 기자

제4차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새벽기도회

7월 28일~8월 20 일-금 5:30 토 6시, 갈보리선교교회서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 주최로 ‘제 4차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 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가 7월 28일(월)부터 8월 20일(수)까지, 3주 동안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열린다.

세대 간의 영적 연결 고리를 이어가기 위한 기도의 자리인 이 행사는, 3년 전 팬데믹 종료 시점에 시작됐다. 당시 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하던 중 ‘새벽을 깨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OC 지역 한인 교계기관 리더들의 추천을 통해 30~50대 차세대 한인 목회자들이 새벽기도회 강사로 세워져 지금까지 3년 동안 63명의 목회자가 강사로 섬겼다. 이번 기도회에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교회 젊은 목사들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OC 교계는 대각성 새벽기도회에 이어, 8월 21일(목)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Again!, 다시 너를 세우리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김종국 총장(예반겔리아 대학), 이상명 총장(CPU) 등이 강사로 서게 된다.

기도회 및 세미나에 관한 문의는 조진웅 목사(OC교협 총무, 714 686 1441)에게 하면 된다.

일정: 7/28(월)-8/20(수) 월~금: 오전 5시 30분, 토: 오전 6시
갈보리선교교회: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7/28	신경섭 목사(어노인팅교회)
7/29	제임스구 목사(글로벌비전교회)
7/30	이원철 목사(LA마가교회)
7/31	박은성 목사(Acts Global Church)
8/1	이상훈 목사(한마음교회)

8/2	김종규 목사(OC제일장로교회)
8/4	신형석 목사(엠툄름교회)
8/5	신유호 목사(예수생명교회)
8/6	유인선 목사(엘피스장로교회)
8/7	백동진 목사(미라클랜드침례교회)
8/8	김경목 목사(어바인열린교회)
8/9	정성택 목사(얼바인중앙침례교회)
8/11	박 유 목사(새빛사랑교회)
8/12	송 일 목사(애나하임한인장로교회)
8/13	문두진 목사(남가주임마누엘교회)
8/14	신성옥 목사(재건나성교회)
8/15	이샤야 목사(New Start Community Church)
8/16	백창호 목사(오렌지힐교회)
8/18	이병열 목사(드림교회)
8/19	조유진 목사(풀러튼영락교회)
8/20	이찬영 목사(OC마가교회)



베일러 대학. ©베일러 대학/Morty Ortega

베일러 대학, LGBTQ 보조금 64만3천 달러 반환

텍사스 최초의 대학교이자, 텍사스 침례회 교육회가 설립한 베일러대학교(Baylor University)가 교회 내 LGBTQ+ 포용을 강화하기 위해 받은 64만 3천 달러의 보조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9일 비영리 재단이 대학의 지도부를 비난했다. 올라 메이 앤 존 바우 재단 이사들은 크리스천 포스트에 성명서

를 통해 “이번 결정은 베일러 대학교 학생, 교수진, 더 넓은 기독교 공동체에 해가 된다”며 “베일러 대학교는 과학적 탐구의 진실성을 보호하고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이 정치적 변화에 따른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복잡한 문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미엘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신속 정확
소액~고객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 상영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
(마 28:19, 20)

선한목자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식

은혜의 50년, 오늘의 감사, 내일의 비전

2025년 7월 20일(주일) 오후 4시
선한목자교회 본당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7:45
2부 예배 오전 9:10
3부 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5N (5가지 비전)
Good News Next Step Neighbor Network New Body

교태형 담임목사

ECO 선한목자교회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GIFT 전인 코칭 <사랑도 과학이다> 특별 세미나

관계 회복과 소통의 깊이 있는
통찰 제공, 참가자 만족도 높아

상담, 코칭, 의학, 영성을 통합한 독자적인 교육 철학을 지닌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GIFT Whole-Person Coaching Institute)가 지난 6월 28일(토), ‘관계 회복과 소통’을 주제로 한 특별 세미나 <사랑도 과학이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참가자들에게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실질적인 소통 기술을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상심리학 박사이자 ICF 인증 전문 코치인 리디아 전 박사와 MIT 출신 메디컬 닥터 조셉 전(전달훈) 박사가 직접 강

사로 나서, 이마고 대화법의 핵심 단계와 ‘감정의 납치’, ‘관계의 네 가지 독(비난, 방어, 열시, 담쌓기)’ 등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풀어냈다. 참가자들은 이론적 설명과 함께 직접 대화법을 연습하는 시간을 통해 배움을 심화했다.

세미나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참가자 대부분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이마고 대화법 훈련’, ‘경청하는 훈련과 타인에게 공감하는 기회’,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이해’, 그리고 ‘부부 간 대화법을 통한 치유의 경험’ 등을 가장 인상 깊고 유익했던 부분으로 꼽았다. 한 참가자는 “소통의 방법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가 ‘관계 회복과 소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GIFT
들을 자세하고도 체계적으로 알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다른 참가자는 “배운 대화법을 실제 삶과 관계에 적용해 보겠다”는 의지

의 몸, 마음, 관계, 영성을 통합적으로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Whole-Person’ 코칭을 지향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학교의 비전을 대중에게 알리고, 실제적인 관계 개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는 오는 9월 2일 제2기 ICF 자격증 과정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에 앞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 7월 8일(화)과 8월 4일(월) 저녁 7시 30분(미 서부 시간 기준)에 진행될 예정이다. 코칭 전문가의 꿈을 가진 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이윤준 기자
GIFT 전인 코칭 웹사이트: giftcoachinginstitute.com
전화 문의: 714-298-1115



“시니어!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 떠나는 3일간의 여정

인생의 후반전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우고자 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캠프가 열린다.

효사랑시니어대학은 7월 23(수)부터 7월 25(금)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니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친구 초청 비전캠프를 연다.

이번 효사랑 시니어 비전 캠프는 효사랑 시니어대학의 대표적인 인기 강좌들을 하루 4교시 3일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성경 강의, 난타, 미술, 음악, 합창, 하모니카, 에어로빅, 라인댄스, 자서전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성경적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시니어대학 측은 “이번 행사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묻고 서로를 격려하며 활력있고 따뜻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의 셋째 날 첫시간은 난타, 에어로빅, 하모니카의 오프닝 콘서트로 시작된다. 각 프로그램은 실제 시니어대학에서 운영 중인 정규 과목으로, 체험자들은 수강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시니어대학을 경험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기존 수강생과 수강생의 지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니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점심식사를 포함해서 \$30.00이다. 교재는 무료로 제공된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선착순 접수한다.

주디 한 기자
홈페이지: hyosarangus.com
주소: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문의: 714-670-8004, 562-833-5520

달라스 신학교 한인동문회 주최 내러티브 강해설교 세미나

달라스신학교 한인동문회
특별강좌, 8월 4일(월)
티모시 랄스턴, 티모시 워렌 박사

달라스신학교 한인 동문회(DTS Korean-American Alumni Association, 이하 KAAA)가 오는 8월 4일(월) LA 동부장교회(4270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에서 ‘내러티브 강해설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야기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성경 내러티브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신실하게 설교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자리로 마련된다. 강사로는 달라스신학교 티모시 롤스턴 교수

(Dr. Timothy Ralston, 목회학)와 티모시 워렌 교수(Dr. Timothy Warren, 명예교수)가 함께 나선다.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점심 식사를 포함해 35달러다.

7월 20일(일)까지 할인코드 ‘ebird’를 입력하면 조기등록가인 25달러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포스터에 안내된 QR 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이메일(KAAA.DTS@gmail.com)이나 전화(213-383-



3261)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세미나 이후에는 DTS 한인 동문회 정기 모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신학생, 목회자, 설교자 등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 1면 기사 <베일러 대학 LGBTQ 보조금 반환>에 이어서

보조금 소식이 보도되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자, 베일러 대학 린다 리빙스턴 총장은 X를 통해, “베일러 대학교는 기독교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배려 깊은 공동체를 제공하고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이 때문에 최근 수령한 보조금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전했다.

학교의 다이애나 R. 갈랜드 사회 복지대학이 6월 30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보조금은 “교회 내에서 포용성과 소속감을 강화

하며, LGBTQIA+ 구성원들과 여성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온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 용기를 기르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리빙스턴 총장은 성명에서 막대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이며 베일러의 최선의 이익”이면서, 사회복지대학 학장인 존 싱글터리, 수석 연구원인 게이너 안시, 교무처장인 낸시 브릭하우스가 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총장은 베일러 대학에서 LGBTQ 학생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보조금이 학교의 명시된 성 윤리를 실질적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베일러 대학교의 성적 지향에 관한 성명서에 따르면, “독신 생활의 순결과 남녀 간의 결혼 생활의 정절을 성경적 규범으로” 규정한다.

텍사스에서 가장 오래된 이 대학은 텍사스 침례교 총회(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와 여전히 협력하고 있다. 텍사스 침례교 총회 역시 성, 성별, 결혼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따른다.

그는 “베일러의 교육적 신념과 정책은 변함없다”고 주장하며, 이 LGBTQ 포용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반환이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였다. 베일러 대학교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충현선교교회 이찬수 목사 초청 설립 40주년 기념 부흥회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2025년 7월 18일(금) - 20일(주일)

주 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엡 6:10-13)

집회일정

18일 (금)	저녁 7:30	“그 힘의 능력으로” (엡 6:10-13)
19일 (토)	새벽 5:20 저녁 7:00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행 2:42-47)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 (삿 16:1-2)
20일 (주일)	1, 2, 3부 오후 2:00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 (출 33:1-11) “삶의 목표가 가진 힘” (롬 11:33-36)



강 사
이찬수 목사
분당우리교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홈페이지



담임목사
국윤권
Rev. Kenny Kook



충현선교교회
YouTube

차세대 지도자 양성 위한 ‘ACE 디사이플십 프로젝트’

미 중부, 동남부 지역 교육
기관 및 단체와 협력 논의

다음세대 사역단체 ACE(Adullam Community in the Endtime, 이하 ACE)가 차세대 지도자 양성과 전 문인 선교사 훈련을 위한 ‘ACE Discipleship Project’를 본격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ACE 본부는 뉴 욕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 트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 로 한 차세대 리더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ACE는 교육 전문가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 전문가 이시원 선생(20년 이상 국내외 학교 근무, 다수의 강연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교육 관계자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미주 중남부 지역, 5월 동남부 지역 방문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으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 및 단체



센터가 센터를 신학교 방문. 왼쪽부터 정병길 목사(ACE 사무부총장), 센트럴 신학교 신학대학원 한여부 디렉터 박 사무엘 교수, 장규준 목사(ACE 사무총장), 장의기 전도사(ACE 차세대사역위원장). 기독교 대학학교 베리타스 아카데미 방문. ©ACE

들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캔자스시에 위치한 센트럴 신학대학원(Central Seminary)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ACE는 한국학부 디렉터 박 사

무엘 교수와 만나 협력 방향을 모색했으며, 센트럴 신학대학원의 김성정 교수가 ACE 교육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어 ACE와 Central Seminary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캔자스시티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 전문 단체 TVNEXT 대표 김태오 목사, 김사라 사모)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다음세대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 기독교사 연수 프로그램(2026년 1월 6~15일) 위한 현장 답사

ACE는 2026년 1월 6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기독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현장 답사도 병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진 교육 기관 탐방, 현지 교육 관계자들과의 미팅, 미국 문화 체험 등을 통해 기독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을 목표로 한다.

이번 방문과 미팅들은 단순한 다음세대 사역을 넘어,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ACE의 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선 기자**

강릉 기자의 교회 탐방하기

좋은 사람들의 좋은 교회 발렌시아 샘물교회



발렌시아 샘물교회(이건창 목사)가 야외 예배를 드린 후 교인들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 ©발렌시아 샘물교회

미국교회 예배가 끝나자마자 발렌시아 샘물교회(이건창목사)는 분주하게 예배를 준비했다. 이 건창 목사, 사모, 자녀들이 준비하는데 반주자 조현주 권사가 동참해 예배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다. 곧 조현주 권사의 찬양 반주가 예배당을 채우자, 예배당 좌석도 하나둘씩 채워졌다. 아름답고 깨끗한 예배실에 맑고 밝은 성도들이 채워졌다.

목사와 사모는 분주하게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특히 사모는 일일이 성도들을 찾아가 손을 잡아 주며 눈을 맞추어 인사하는데 밝은 사랑의 기운을 전해지는 듯했다. 사랑을 담아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이견창 목사나 사모의 모습에 반가움과 감사 그리고 기쁨이 가득해 보였다. 반갑게 인사로 반응하는 성도의 시선에도 사랑이 똑똑 떨어졌다.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 아름다운 기운이 가득했다.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들! 부러웠다.

예배는 아주 심플하고 명료하게 진행되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였다.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의 예배 초청이 시작되자마자 은혜 가득했다. 묵상과 기도로 준비된 담임 목사는 영성 가득한 기도와 예배 초청으로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

대했다.

이건칭 목사의 설교는 그야말로 명설교였다. 깊은 말씀 묵상과 해석, 삶의 현장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적절한 적용이 어우러진 설교였다. 설교는 진국 같은 말씀이었다. 설교 말씀마다 신음하듯 ‘아멘!’을 토해내시는 ‘이민지 장로님’은 설교에 완전히 몰입했다. 은퇴하신 여자 장로님이 말씀 듣는 모습이 감동이었다.

그런데 ‘아멘!’의 화답은 이민자 장로님 혼자만이 아니었다. 온 성도가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했다.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견

창 목사의 설교에 성도들은 공감과 지지, 결단의 마음으로 아멘을 고백했다. 건강한 영적 기운이 예배당에 가득했다. 역시 소문대로 발렌시아 샘물교회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였다.

발렌시아 샘물교회는 2004년에 개척되었으며 코로나 고통을 이기며 든든한 교회로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이견창 담임 목사는 성경을 100%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꿈꾸며 교회를 개척했다. 이 목사는 본질에 충실한 목회자이고 분명한 복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

라서 그의 삶과 사역도 명쾌하고
심플하다.

이건창 목사는 복음주의 신학으로, 또 최근에 성령 강림 역사로 잘 알려진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 Div.)를, 풀러 신학 대학원에서 선교학 석사를 공부했다. 발렌시아 샘물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라크라센타 한사람 한인 연합 감리교회에서 청소년 영어부를 섬겼다. 지성, 영성, 진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진 목회자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목회자다.

강훈 기자

한 여름 밤의 여성 합창

창단 23주년을 맞은 벨리 한인 여성 매스터코랄(지휘: 오정근, 단장: 김광숙)은 7월 26일(금) 오후 6시, 에브리데이교회에서 <한 여름 밤의 여성 합창>이라는 주제로 공연한다.

음악을 사랑하는 벨리 여성들이 모여 꾸준히 활동해온 매스터코랄의 이번 공연은 호산나 사물놀이 오케스트라 연주, 합창 등이 이어지며, 여러 가곡과 ‘가족이라는 이름’, ‘그대 모습은 장미’, ‘그때 그 사랑’ 등의 가요, ‘내 주 되신 주를 찬양 사랑하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은혜의 바다로’ 등의 성가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별무대로, 소프라노 신선미의 독창과 듀엣 무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호산나 남성중창단'이 찬조 출연하여 '산골짜기의 등불', '향수'를 부른다.

밸리 한인여성 매스터코탈은 매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에브리데이교회에서 정기 연습을 하고 있다. 합창을 좋아하는 밸리 여성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주디 한 기자

공연 장소: 에브리데이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문의: 818-523-4837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재단이사장 **한기홍 박사** 총장 **최규남 박사**

2025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5년 7월 31일 까지

| 입학 절차 |

1. 원서전수

.....

웹사이트에서
Apply메뉴 클릭

➔

2. 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
필요서류 제출

➔

3. 인터뷰

.....

온라인 인터뷰
진행

| 입학 문의 |

☎ 입학처. (714) 525-0088 (ext 101)

✉ 이메일. admissions@gm.edu

🌐 웹사이트. www.gmu.edu

GMU 웹사이트 [Apply 바로가기]

www.gm.edu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재를 의지하면 재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5-6

학 사 Bachelor of Arts

- 신 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석 사 Master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박 사 Doctoral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학철학 PhD in ICS
- 교육학철학 PhD in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in CP

International Track

- English Track BATH, MDiv, MACE
PhD in ICS, DMiss
- Chinese Track BATH, MDiv
PhD in ICS, DMiss
- Spanish Track BATH, MDiv
- Indonesian Track BATH, MDiv

| 학생 혜택 |



유학생
1-20 발행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연방정부 학비지원
(FSA)



통신(Online)수업을
통한 학위 취득 가능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교육 인가 기관





가정예배 공모전 우수상 LA One Church 곽수정 사모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와 미주복음방송(대표 이영선 목사)이 남가주 한인 가정을 대상으로 개최한 ‘우리 집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에서 엘레이 원처치의 곽수정 사모가 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다음은 곽수정 사모와 미주복음방송의 인터뷰.

우리집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세상에 가정 예배 잘 드렸다고 상주는 공모전이 어디에 있을까 싶었습니다. 방송과 뉴스는 보통 사람들의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쪽으로 관심 가지며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데, 세상이 관심 갖는 것이 아닌 하나님 관심을 중심으로 상 주시니 정말 기독교 방송과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제게 상 주신 분들과 공동체가 계심이 감동이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봐주시니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가정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겉모습으로는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화목해 보이고 부족함 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허무하고 무의미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영생의 말씀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도저히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교회를 못 가게 막을수록, 교회 가는 방법을 치열하게 계획하고 제 성경을 누군가 쓰레기통에 버리면 새로 구한 성경을 가장 안에 숨겨서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읽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래에 제가 어머니로서 있게 될 가정의 예배를 꿈꾸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된 가정 예배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 구성원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가족은 저와 목사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 네 명, 위탁 아동 세 명, 합해서 7명이 함께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에 머물다 간 위탁 아들딸까지 더하면 11명인데요, 지금은 7명 핵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7명을 돌보는 육아와 살림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모로서 하시는 일이 많으신데 어떠세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낳은 아이들 네 명이 모두 연년생인데요. 네 살, 세 살, 한 살, 신생아를 동시에 어떻게 키웠던가 생각하면, 정말 많이 울고 많은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신생아에게 젖을 물리고, 한 살 아이 이유식을 입에 떠먹이고, 두 살 아이가 넘어진 걸 일으키고, 세 살 아이가 안 아달라며 울 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는 아기 엄마들이고, 자기 손으로 젖병 하나 손에 쥐지 못하는 아기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기 엄마들과 아기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더 많이 묵상했습니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위탁 아동 사역을 통해 가장 연약한 아기들을 돌보는 중입니다. 어렵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새 힘을 주신 이후 더 크게 높이 뛰게 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로 아기들을 키우는 미혼모들과 남편 없이 홀로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과부를 섬기는 사역을 더 확장하고 싶은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예배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우리 가족은 8년전 컴튼으로 이사를 갔고 컴튼 지역에 LA One Church 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단에도 속해있지 않고, 후원교회 없이 시작했기에 저희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예배가 곧 주일 예배였고, 가정예배가 금요일야 예배였고, 가정예배가 새벽기도였습니다.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아이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을 따라, 아빠를 따라 컴튼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까?”라고 외치면 아이들은 “네!” 하고 외치며 시작한 가정예배가 엘레이 원처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시작 때



월드미션대학교와 미주복음방송이 주최한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 우수상 수상자인 곽수정 사모(LA One Church)가 미주복음방송에 출연해 소감을 나눴다. ©미주복음방송

는 아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찬양인도를 했지만, 지금은 첫째 아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아빠를 대신해 말씀을 전하기까지 성장했습니다. 곧 둘째, 셋째, 위탁아들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예배를 인도할 날을 준비 중입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아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14살 첫째는 “9명 가족을 찬양 인도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했고 12살 둘째는 “부모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적인 가족의 삶을 살 수 있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셋째는 “가족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라고 했고, 막내딸은 “가정 예배를 통해 가족 시간을 갖고,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어서 행복해요.”라고 했습니다. 위탁 아이들은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이 내 죄로 죽으심을 기억할 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정 예배 중 생각나는 에피소드를 나눠주시겠어요?

가장 최근의 가족예배를 드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공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빠 목사님께 서 지난 7주간 세미나를 했습니다.

마지막 7주차에 아이들에게 직접 준비한 성경공부와 설교말씀을 가족 앞에서 각자 10분씩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10분을 준비하기 위해 아이들은 스테디 바이블과 주석을 찾아보고 원문을 히브리어와 현대 성경 단어를 비교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6시간을 준비하면 10분 설교가 준비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했습니다.

14살 첫째 아들은 몇 년 전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13살 둘째 아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본인도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가장 감사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가정 먼저 떠오릅니다. 격정, 근심, 아픔, 마음의 상처로 멎들어 있을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도록 도와주는 가정예배,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가정예배, 상처와 눈물 닦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가장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 감옥의 감독관이 바울님께 여쭙길 “저는 어떻게야 합니까!” 하며 두려워 떨 때 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가정의 리더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비결은 가정예배에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 부모님이 인도하는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들은 예수님을 듣게 되고, 마음으로 믿게 되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예배의 비전은 자녀들이 천국 가는 것, 저희 가정과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을 한 분들이 천국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모든 교인과 이웃들에게도 오픈해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끔은 먼 타주에서, 한국에서도 저희 가정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면 방문하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영적으로 큰 위로와 회복,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가정예배를 드리기까지 정말 힘들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께 격려해 드리고 싶은 말은 서로 기도 제목만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날로 시작해서, 어느 날에는 은혜받은 말씀을 나눠주시고, 말씀을 공부해서 준비하셨다면, 그때 성경 공부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각 나라와 지역마다 문화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우리 믿음의 가정은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다 하면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 말씀이 가정예배를 통해 넘쳐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복음방송 기사제공.

웹사이트: www.laonechurch.com
교회 주소 : 430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문의: Pastor Chan Kwak (213) 273-6452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기호, 김중언, 고송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2025 달라스신학교 미주한인동문회 특별강좌

Narrative Expository Preaching Seminar

네러티브 강해 설교란 무엇인가

본 강의는 달라스신학교(DTS)의 강해 설교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성경 내러티브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티모시 할스톤 박사
달라스신학교 목회학 교수

티모시 워렌 박사
달라스신학교 설교학 명예교수

장소 LA동부장로교회 (4270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접수** QR 코드 스캔 **참가 비용** \$35 (점심식사 포함)

일시 8월4일(월) | 오전 9시 ~ 오후 4시 (통역 제공) **문의** 이메일: KAAA.DTS@GMAIL.COM **전화:** (213) 383 3261 (교회)

주최 KAA KOREAN-AMERICAN ALUMNI ASSOCIATION DTS 협력 EPC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특별한 공연

2025.
7.17. 목
8:00 PM

공연 주소

Cerritos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8000 Park Plaza Dr
Cerritos, CA 90703

센터메디컬그룹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연 당일 찾아뵙겠습니다

조수미 콘서트 회원 전용 무료 티켓 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리며, 비회원 분들은 추후 문화행사 참여를 위해 센터메디컬그룹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 본 공연은 TICKETMASTER.COM (Mad for Love - Sumi Jo)를 통해 개별 티켓 구매가 가능합니다.

SPONSORED by © 센터메디컬그룹

MAD FOR LOVE

조 수 미 단 독 콘 서 트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 정체성 회복해 ‘오직 성경’ 으로 다시 서자”

한장총, '제17회 한국장로교의 날' 개최

한국장로교총연합회(총회장 권순웅 목사, 이하 한장총)가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주다산교회(담임 권순웅 목사)에서 '제17회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를 '살롬 부흥!'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행사는 예배, 성찬식, 기념식, 뮤지컬 순으로 진행됐으며 예배는 이선 목사(상임회장)의 인도로 드려졌다. 김선 목사(개혁개신 총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으며 이어 이종화 목사(기장 부총회장)가 '성경'(히브리서 4:12), 김영길 목사(통합 총회장)가 '찬송'(시편 22:3), 이규환 목사(백석 총회장)가 '교회'(마태복음 16:18), 김종주 목사(호헌 총회장)가 '주일학교'(누가복음 2:52), 정정인 목사(대선 부총회장)가 '기독교 학교'(마태복음 28:19-20), 정서영 목사(합동개혁 총회장)가 '사회봉사'(요한일서 3:18), 박병선 목사(합신 총회장)가 '해외선교'(마태복음 28:20), 장봉생 목사(합동 부총회장)가 '비전'(창세기 22:14)이라는 주제로 각각 설교했다.

이종화 목사는 “장로교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날 점점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말씀은 설교의 재료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말씀을 외면한 채 편안함과 성공을 추구한다면 모양만 갖춘 신앙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만이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 예전처럼 외치고, 화해처럼 품고,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 은혜의 날에 함께 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길 축원드린다”고 했다.

이규환 목사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듣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다.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자 그리스도라는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 예수님의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예수님의 교회는 교

회를 통해 생명과 복을 주며 교회 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다. 교회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희망이다. 교회가 있는 곳에 마귀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빛과 희망이 온다. 교회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교회는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다. 우리는

교회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장봉생 목사는 “섭리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행위, 즉 창조세계를 지행하고 다스리시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 장로교의 실체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더 ‘여호와 이레’로 불드시고 지도하시고 통치하신다. 이사야 48:11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이며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떼서 안되는 비전이기도 한다. 친히 주권적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비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주다산교회에서 '제17회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를 '살롬 부흥!'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브라이언 박 목사

“동성애는 죄...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거룩하신분”

브라이언 박목사(저스트 지저스 대표)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저스트 지저스'의 '만나요'(크리스천 고민 상담) 코너에서 동성애와 외로움 문제로 고민하는 한 사역자와의 상담 내용을 전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라며 거룩함 없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왜곡된 것임을 강조했다.

상담 내용에 따르면, 사역자는 동성애가 죄임을 인지하면서도 외로움 때문에 끊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이에 박 목사는 외로움보다 더 두려운 것이 '지옥'이라며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보다 더 큰 고통이 지옥에서의 형벌”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역자에게 본인이 생각하

는 하나님에 대해 묻고 “사람에게 위로 받고 싶은 것이 많은 분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본인은 말하면서 왜 그 분께 위로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라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그 분이 등을 돌리신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분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이 없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거룩을 빼 버리고, 그냥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사랑만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셔서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다 받아주시는 물러터진 이상한



브라이언 박 목사 © '필그림교회' 유튜브

신으로 가르친다. 즉, 거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잡신을 가르친다”고 했다.

사역자는 동성애는 중독이고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병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박 목사는 “동성애는 영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육적으로 해결하려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영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은 구별된 삶을 말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눈감고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양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를 지은 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신다”

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내가 살겠다는 방법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에 그렇게 살도록 놔두시지만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이라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신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사망의 길을 고집한다면 좋으신 하나님은 손을 놓으신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성애를 끊고 다시 외로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성도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중에 시간을 달라고 해도 이미 끝난 것”이라며 “자신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 과거의 어둠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성도님과 대화하면서) 느껴진다. 하나님은 성도님이 지옥에 가는 걸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고 강조했다.

장요한 기자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달보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달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탈보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보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div>Minsoo Sim, Ph.D. /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div>	 <div>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div>	 <div>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div>	 <div>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div>
 <div>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div>	 <div>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div>	 <div>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div>	 <div>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div>
 <div>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div>	 <div>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div>	 <div>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div>	 <div>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div>	 <div>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div>	 <div>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div>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 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 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미국 교회들, 대규모 세례 운동으로 성장세 경험

세례는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전도 도구 중 하나

크리스천포스트(CP)는 미국 전역에서 교회들이 세례 운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세를 경험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P는 최근 2년간 세례 운동에 참여해 큰 성과를 거둔 교회들은, 이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전도의 기회로 삼아 교인 수 증가와 공동체 부흥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세례 운동을 주도한 스티븐 프란시(Francey) 목사는 “지난 2년간 세례 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목회자들은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세례식을 경험했고, 교인 수도 5~10%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례는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전도 도구



미국 전역에서 지난 6월 오순절 주일을 맞아 2만 8천 명이 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대규모 부흥 행사가 열렸다. ©Courtesy Baptize America

중 하나”라며, 세례식이 비신자들에게도 교회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이웃에게도 ‘우리 아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반드시 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년 전 파이럿츠 코브(Pirates Cove)에서 있었던 대규모 세례식을 회상하며 “당시 4,166명이 세례를 받고, 12,00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해변 전체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나도 세례 받아본 적이 없네’라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랜도레이크스에 위치한 그로우라이프 교회(GrowLife Church)의 케어 목사인 칸디 베일리(Kandi Bailey)는 이번 ‘Baptize America’ 운동에 참여해 22명의 세례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베일리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려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거대한 비전에 동참하고 싶었다”며, “수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하늘의 시각으로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아름다움을 보고, 다른 이들도 용기를 내어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승연 기자

죽음을 무릅쓴 믿음: 이란 지하교회가 서구 교회에 주는 도전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제니스 로서 앨런의 기고글인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어려운 곳에서도 희망은 있다’(In one of world's most difficult places to be Christian, there's hope)를 8일 게재했다.

제니스 로서 앨런은 2008년부터 International Cooperating Ministries(ICM)의 CEO 겸 집행 위원장으로, 1986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2020년에는 CEO로서의 역할 외에도 ICM의 사장으로서 추가적인 책임을 맡게 되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인구가 거의 9천만 명에 달하는 이 나라에서, 98% 이상이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기독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79년 혁명 이후, 이란의 연이은 정부들은 이슬람에 대한 급진적인 해석을 강요해 왔다. 공식 국교인 열두 이맘파 자아파리시아 이슬람을 완벽히 따르지 않으면, 서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엄격한 해석은 다른 종교를 불법화하고, 그 신자들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슬람 율법의 사소한 일탈이나 다른 해석조차도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게 살해당한 지나 ‘마흐사’ 아미니의 비극적 죽음은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했다. 그 결과, 약 2만 명이 체포됐고 일부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독교 국가 중 하나인 이곳에서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이곳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현재 이란에는 1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숨어 살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인구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 수치는 이란 국민 사이에서 복음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자들이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15명 이하의 가정교회가 증가하고 있다. 성찬은 초대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시작된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다.

믿음의 대가 배우기

매일같이 뉴스에서 이란 소식을 접하지만, 그리스도인 이란인들의 실제 삶은 대체로 오해되거나, 그들이 복음을 위해 치르는 극도의 희생을 외면하기 일쑤다. 그들의 끈질

긴 신앙은 예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믿음을 반영한다. 신앙이 발각될 경우, 사랑하는 이들이 처벌을 받을까 두렵고, 본인이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산다. 차와 전화는 도청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감옥은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기독교인과 다른 소수 종교인들로 가득하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이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몸, 하나의 세계 교회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곳의 형제자매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귀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놀라운 용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놓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서구에서 누리는 자유는 감사할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기도 한다.

주일 아침, 우리는 최고의 설교와 가장 화려한 찬양,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로 채워진 편안한 공동체를 찾는다. 그러나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오늘 하루 더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있다.

극심한 압박 속의 돌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듯, 고난 속의 믿음은 더 깊고 단단해진다. 아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이란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자마자 사회에서 버림받았다. 명예를 중시하는 이란 문화, 즉 수치 기반 사회에서 그녀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가족도 등을 돌렸고, 아버지는 아기를 이맘 레자 사원에 버리라고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아잠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2천 년 전, 문화로부터 외면받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렸다. 그러던 중 한 기독교 여성을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수치를 대신 지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말이다.

이란의 신자들은 기독교가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닌,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임을 보여준다. 그들은 교회 건물에 다닐 수 없지만, 바로 그들이 교회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만큼 가치 있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따른다.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그들의 고통을 따라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들의 분명한 목적 의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이다. 그들의 본은 우리로 하여금 모

든 군더더기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한다. 보여주기식 예배가 아닌 순수한 예배, 프로그램이 아닌 제자훈련,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가진 자유 속에서도 그들처럼 집중력과 긴박감을 가지고 산다면 어떨까?

지하 교회와 연결되기

아잠과 같은 전 세계의 신자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ICM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란도 예외가 아니다. 숨어 있는 지하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현지 파트너들은 마이크로 SD 카드에 페르시아어 성경을 담아 배포하는 ‘페르시아 비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다.

우리의 참여가 생명을 위협받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배우고, 그들의 이야기를 널리 전함으로써 그들과 동참할 수 있다. 이란의 핍박받는 교회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세계 교회를 이끌고 있다. 명령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

신미셸 기자



CONGRATS, GRADUATES!

APU	MICA	RUTGERS	UC BERKELEY	UCI	U OF I URBANA
BIOLA	MOUNT ST MARY'S	SANTA CLARA UNIVERSITY	UC DAVIS	UCSD	UNIVERSITY OF PITTSBURG
BOSTON UNIVERSITY	NORTHEASTERN	SCAD	UC MERCED	UCSB	U OF M TWIN CITIES
DREXEL UNIVERSITY	NYU	ST LAWRENCE UNIVERSITY	UC RIVERSIDE	UCSC	U OF WASHINGTON
FORDHAM UNIVERSITY	PARSONS	SYRACUSE	UC SANTA CRUZ	U OF ARIZONA FLAGSTAFF	UNIVERSITY OF THE PACIFIC
LMU	PEPPERDINE	TEMPLE	UCLA	U OF I CHICAGO	VIRGINIA TECH



Now Enrolling for the 2025-2026 School Year!

(213) 487-5437
ncahuskies.org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성 정체성 견해 밝힌 X게시물 삭제 명령 받은 캐나다인 활동가 승리



빌보드 크리스, © ADF International

호주 멜버른의 한 재판소가 성 정체성 에 대한 견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삭제 명령을 받았던 캐나다인 활동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빌보드 크리스 엘스턴은 2024년 2월 올린 게시물에서 트랜스젠더로 정체성을 밝힌 활동가 테디 쿡이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로 임명된 것을 비판했으며, 쿡을 생물학적 대명사를 사용하여 지칭했다.

호주의 ‘e안전’ 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을 ‘사이버 학대’로 간주하여 X(구 트위터)에 삭제 명령을 내렸다고 호주 인권법 연합(Human Rights Law Alliance)과 협력하여 법적 도전을 조정한 법률 옹호 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이 밝혔다.

X 측은 당초 이같은 요구에 저항했지만 호주 내에서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엘스턴과 X는 ‘e안전’ 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법적 도전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호주 행정심판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멜버른에서 일주일간 심리를 열어 해당 게시물이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행정심판재판소는 엘스턴의 표현을 폭력적이라고 분류한 위원이 오류를 범했다고 판결하고, 공식적으로(게시물) 삭제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장을 맡은 오도노반 부소장은 엘스턴의 증언을 자세히 인용했다. 엘스턴은 개인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엘스턴이 성별 관련 대명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표적 괴롭힘의 한 형태가 아니라 그의 신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엘스턴의 게시물이 온라인 안전법에 따른 사이버 학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위원의 규제 조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판결은 호주 정부의 온라인 콘텐츠 권한 확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와중에 내려졌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최근 호주 e 안전 위원회와 세계경제포럼(WEF) 산하 단체인 책임 있는 미디어를 위한 글로벌 연합(GARM)의 협력을 포함한 국제 검열 노력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GARM은 규제 기관 및 광고주들과 협력하여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차단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호주 위원의 행동이 강압적 검열 주제의 일부라고 밝혔다.

엘스턴은 이 결정에 대한 공개 반응에서 “진실과 상식이 승리한 것에 감사한다. 이 결정은 정부가 평화적인 표현을 침묵시킬 권한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사명은 젠더 이념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전 세계 어린이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가족, 하나님의 디자인’ 파나마 복음주의연맹 메가 축제 개최



‘메가 축제: 가족, 하나님의 디자인’행사가 파나마시티 중심 비아 에스파냐(Via España) 카르멘 교회 인근에서 개최됐다. ©Panamean Evangelical Alliance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나마시티 중심 비아 에스파냐(Vía España) 카르멘 교회 인근에서 ‘가족은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입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가족 가치를 지키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고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DI는 이번 ‘메가 축제: 가족, 하나님의 디자인’은 파나마 복음주의연맹(AEP)이 주최했으며, 수백 명의 신자들이 행진과 찬양, 기도, 믿음의 선언으로 함께했다고 밝혔다. 행진의 분위기는 축제적이면서도 경건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어린이, 청년, 어른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며 행진했고, 각 구간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가족과 정부 지도자, 국가를 위해 기도했다.

AEP 회장 프리시아노 길 목사는 행진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파나마에 승리를 주셨다”고 선언하며, 이번 행사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영적 행사임을 강

조하고 “가족이야말로 국가의 기초 단위임을 사회에 다시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파나마 가족을 지키자’, ‘생명 존중, 가족 존중’,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등의 팻말을 들고, 어떤 어머니들은 자녀의 손을 잡았으며 교회 단체들은 성경 구절이 적힌 티셔츠를 맞춰 입었다. 행진 내내 복음주의 교회에서 익숙하게 부르는 찬양이 울려 퍼졌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과 행진들은 평화로운 행진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짧은 예배를 드리며 다양한 지도자들이 국가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

라틴 복음주의연맹(AEL)은 이번 행진을 ‘기독교의 연합과 시민 참여를 보여준 공적 증언’으로 평가하며, AEP가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폭넓게 호소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AEP는 AEL을 구성하는 22개 국가 연맹 중 하나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에배 오전 11:00
어린이에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내세대에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에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녀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에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에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에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에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절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오전 10:30
주일 오전 9: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세탁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셔(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choonghyun.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기독일보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O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출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美 성인 23%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 추방될 우려 있어”

©pixabay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분의 1(23%)이 가까운 미래에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퓨리서치 센터는 지난달 초(2025년 6월 2일~8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응답자 비율은 지난 3월 19%에서 증가했다. 이는 또한 이 문제가 공화당 지지자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퓨리서치 센터는 “이 (백색을 수치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라틴계 지역 사회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및 로스앤젤레스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시위와 부분적으로 겹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요 도시 일부에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퓨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체포 및 추방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성인들보다 추방이 자신, 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더 걱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민자 10명 중 약 4명(43%)이 상당히 또는 어느 정도 걱정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3월의 33%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이 자료는 “한편,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민자(2세대)인 미국에서 태어난 성인의 34%가 추방을 우려하고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3세대 이상)인 미국에서 태어난 성인의 17%도 추방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의 약 28%가 ‘이민자’로 간주된다.

최신 통계(2024년)에 따르면 이민자는 미국 인구의 15%를 차지하며,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세 미국인은 13%를 차지한다. 이는 9천3백만 명에 해당한다.

퓨리서치 센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미국 성인의 대다수는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추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18%) 또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58%) 답했다”고 한다.

전미복음주의협회(NAE)는 농업과 호텔업에 종사하는 비범죄 이민자에 대한 체포와 추방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러한 정책 전환은 이민자 가정, 미국 사회 및 그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더 큰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의 발표는 농업과 호텔업에서 식량을 생산하고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부와 기타 고용주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한다고 NAE는 6월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이 단체는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계시지 걱정하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윌터 김 NAE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 가정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는지 제대로 인식했다”라며 “그들은 미국을 더 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구성원”이라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미션퓨지 여름캠프, 전역 25개 지역에서 1만 2천여 명 모여

학생들이 MFuge 캠프와 연계된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 ©FUGE Camps Staff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미국 남침례회(SBC) 산하 라이프웨이(Lifeway Christian Resources)가 운영하는 미션퓨지(MFuge) 여름캠프가 올해 미국 전역 25개 지역에서 개최돼 청소년과 성인 참가자를 합해 1만 2천여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4일 보도했다.

MFuge는 센트리퓨지(Centrifuge), 센트리키드(CentriKid) 캠프와 함께 SBC의 대표 여름캠프 브랜드인 퓨지(FUGE Camps)를 이루고 있으며, 말씀 묵상과 예배,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어린이 돌봄, 푸드뱅크 봉사, 주택 손질, 건축 사역 등 다양한 섬김 활동에 참여하며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

조 히스(Joe Hicks) 퓨지 캠프 매니저는 “하나님께서 퓨지 캠프에 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캠프가 존재한다”며 “학생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깊이 연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뱃티스트 프레스(Baptist Press)는 알라바마 모바일대학교(University of Mobile)에서 올해 약 2,400명의 중·고등학생이 MFuge 캠프에 참여할 예정이며,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는 90명의 예수 그리스도 영접과 40건 이상의 사역 헌신 결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알라바마 센터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of Centre)도 테네시주 레바논의 컴벌랜드대학교(Cumberland University) MFuge 캠프에 60명의 학생을 파견하며, 학생 1인당 참가비의 절반 이상을 교회가 지원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가 직면할 ‘무(無)’의 공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댄 델젤 목사의 기고글인 ‘무신론자들이 무(無)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Why atheists should be afraid of ‘nothing’)를 5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델젤 목사는 네브래스카주 파필리온에 있는 리더머 루터 교회(Redeemer Lutheran Church in Papillion)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을 단 하나의 우주론적 선택지에만 가두고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무(無)에서 왔다는 터무니없는 환상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선택을 했다. 이러한 어리석은 믿음은 비이성적인 세계관을 낳는다. 반면 기독교는 증거 기반의 신앙이지만, 무신론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터무니없는 믿음에 종교적 현신과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신론자들은 사실 ‘무(無)’를 두려워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무신론자들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가 생겨났다는 잘못된 가정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러한 맹목적 믿음은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는 터무니없는 공상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결론은 불가능하다.

리 스트로벨은 2017년에 이렇게 게시했다. “무신론자로 남으려면 나는 아무것도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무생물이 생명을 낳고, 무작위가 정밀한 조율을 이루고, 혼돈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무의식이 의식을 생산하고, 비이성이 이성을 낳는다는 것을 믿어야 했다. 나에게서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

무신론자가 증거를 따르게 된다면, 그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요한복음 17:3)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무신론자가 끝까지 자신의 비논리적 이데올로기를 붙들고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머물게 된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유의지로 진리를 외면하고, 본래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창조된 진리를 거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무신론자가 가정의 위기를 맞닥뜨리면, 그는 영적 위로를 받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무신론자가 인생에 환멸을 느낄 때, 그를 절망의 구렁이에서 끌어낼 실제 있는 것도 없다. 그리고 무신론자가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다.

존 노에스는 목사이자 라디오 진행자

이며 기독교 변증가이다. 하지만 그가 무신론자였을 때, 그는 여러 질문과 씨름했다고 한다. “모든 것은 어디서 왔는가?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그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그가 분명히 보고 있던 창조의 경이로움을 설명할 수 없었다. 독자로 노에스 목사와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다. 혹시 그렇다면, 필자는 독자에게 ‘무’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라고 강력히 권면한다. 즉, 무언가가 무에서 나왔다는 자신의 비이성적 가정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다. 설령 독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도 잃을 것이 없다고 느낀다 해도, 필자는 말하고 싶다. 독자가 잃을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말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잠언 9:10).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이 창조주 앞에 결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 착각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초자연적인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심판과 정의가 없다고 잘못 가정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 죄, 용서, 천국, 지옥의 실제로 깨우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 속에 살게 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태복음 10:28).

완고한 마음은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한 지옥 형벌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것을 막는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지옥’이라는 실제 장소 개념을 비웃지만, 그들의 웃음은 비극적으로 무지에서 비롯된다.

필자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한 입장을 보강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자신의 인식이 우주 안팎의 가시적·비가시적 실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한다.”

만약 독자가 모든 것이 무에서 왔다는 생각에 자신의 영혼을 걸고 있다면, 지금 깨어나 영적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몸과 혼과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살전 5:23). 그리고 인간의 불멸의 혼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경 기자

인도 중부, 힌두 극단주의자들 교회 습격...목사 의식 잃고 성도들 중상



보르시 마을의 페니엘 기도교회의 의자가 공격으로 부서진 모습. ©Morning Star News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인도 차티스가르주 담타리의 보르시 마을에서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독립교회 페니엘 기도교회 예배에 난입해 목사를 포함한 성도들을 폭행하고 성경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니엘 기도교회의 와키쉬 사후 목사는 “공격자들은 ‘자이 시리람’을 외치며 나무 막대를 들고 예배당으로 들어와 의자, 선공기, 악기를 파손하고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모아 불태웠다”며 “저의 아버지 만노한 사후 목사는 머리, 가슴, 등을 구타당하고 의식을 잃었다. 공격자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물을 억지로 입에 부었다”고 말했다.

CP는 이날 예배에 참석한 15명 모두 폭행당했으며, 와키쉬 사후 목사의 어머니

니도 남편 만노한 사후 목사를 공격하는 공격자를 막다 손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중 7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CP는 공격자 중 일부만 마을 주민이었고, 대부분은 외부인이었다고 밝혔다. 와키쉬 사후 목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재까지 사건은 정식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같은 교회가 습격을 받아 성도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이후 매주 경찰이 예배 참석 인원을 감시하고 외부인 참석을 경고해왔다. 최근 순찰 중이던 경찰이 떠난 직후 또 다시 습격이 발생했으나, 경찰은 단순히 ‘이제 그만하라’며 공격자들을 돌려보냈다. CP는 같은 달 담타리의 다른 교회들도 힌두 극단주의자들의 난입과 예배 방해를 당했다고 했다.

신미셀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화-금) 05:00AM
- 2부 08: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이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게교회)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말-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교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아)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토)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말-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상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그리스원 비즈니스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s: 008811576
MEDIGARE (메디케어 보험)
213-503-1666
4826 Wilshire Blvd, 9021, Los Angeles, CA 90048
e-mail : 4826wilsh@gmail.com

아이닉스 배다점



자신의 차고...
다들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보고
비밀하러 봐주세요.

최고의 기술과 양해를 추구합니다.



713.383.1230

헤어컷의 명장 이무영 선생님

- 헤어컷 특별 전교하실 분(무모)클래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필요하신 분
- 바쁜 시간 안에 헤어코치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olor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1984년 미용사자격 취득
- 1985년 미용사자격증 취득
- 1987년 미용사자격증 취득
- 1988년 미용사자격증 취득
- 1989년 미용사자격증 취득

드림 미디어, 교회 율형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 소리는 아이들에게 영적 성장을 합니다

1. 구약 사도스 2. 교역 자원 3. Solo리스트 4. 찬양 및 교육

☎ 523-643-5035 ✉ dreamcontents@gmail.com

차질! 수확없이 사슴로도 가능할까요? 

차질공상으로 황문수염중, 황문과
프리미엄 품종 출혈로 헝기도 두벌고
매년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죽음 보험 취급**

\$70

로스앤젤레스 1일 - 7-25kg - 순록 머리 등우는 설치료 가능합니다

30년가장 영수증 **213.360.7800** LA, CA 90008

각종모임 무원협성(고대 공보문화 협회...)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Cooking Mom T. 213-378-8530
 3900 Wilshire Blvd. #102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플럼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채플린 사역과 영적 돌봄 사역 무료 강좌

삶의 위기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에 관심이 있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통로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무료 공개 강좌가 개최된다.

목회와 선교를 위한 정보센터(ICMM)는 전문 채플린 사역을 소개하는 무료 공개강좌를 준비했다. 이번 강좌는 영적 돌봄(Spiritual Care)과 임상목회, 병원 및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채플린 사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훈련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좌 이후에는 전문채플린협회(Association of Professional Chaplains Global Network) 가입 안내도 함께 진행되며, 자격 및 활동 경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이번 강의에서는 <채플린 사역의 이해와 역할>, <채플린 사역을 통한 영적 돌봄 사례>, <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와 채플린 훈련 과정>, <전문채플린 인증과 협회 가입 절차 안내> 등을 다

루게 된다.

강의는 7월 16
일(수) 오후 5:30
에 현장과 온라
인(Zoom)으로 진
행된다. 등록은
ICMM 웹사이트
를 통해서 하면
된다.

이번 강좌를 준비한 제임스 구 (Dr. James Koo) 박사는 ACPE 가 인정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Unit 4를 이수하였으며 2022년 부터 현재 까지 Green Field Care Center 채플린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2025년 부터 자체 채플린 교육 과정을 진행

강의 일정: 7/16(수) 오후 5:30

참가비: 전액 무료

강의 장소 : 1442 Irvine Blvd, STE

Global Vision University

채플린 사역과 영적 돌봄 사역
Chaplain and Spiritual Care
무료강좌

전문채플린협회 가입 안내

영적 돌봄 사역에 초대합니다.
전문 채플린 사역의 실제와 방향성을 소개
영적 돌봄(Spiritual Care)의 중요성과 안내
채플린 사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훈련 방법

전문채플린협회(Association of Professional Chaplains
Global Network) 가입 안내, 자격 및 활동에 대해 상세한 설명

 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와 Preparation

 채플린 사역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분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리더
선교지 및 지역사회에서 돌봄 사역
영적 돌봄의 중요고 계산 모든 분

 <https://churchhomepage.org>
<https://globalvisionuniversity>
이메일 icmm@churchhomepage.org

매주 CPE 교육:
장구 북요일 저녁 7시 10분, 8주간(1Unit)
4 Units: Zoom 강의와 임상실습

Phone
949-667-0264
714-393-4595 (문자)

Address
1442 Irvine Blvd. STE 108,
Tustin, CA 92780



ICMM은 채플린 사역을 소개하고, 채플린 협회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는 무료 강좌를 개최한다.

108, Tustin, CA 92780

웹사이트

<https://churchhomepage.org>

<https://globalvision.university>

주디 한 기자

교회 단신

▶**지오앤디교회 부흥회**
싸이프레스에 있는 지오앤디교회(Go & Disciple church, 정병규 목사)가 임진혁 목사(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초청해 7월 11(금)-13(주일)에 부흥회를 개최한다.

일시: 7월 11일(금) 7:30 PM
7월 13(주일) 7:00 PM
집회 주소: 3021 Blume Drive,
Rossmoor, CA 90720
문의: 714-745-8044

▶원웨이교회 김성일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7월 13일(주일) 오전 10:30
원웨이 교회 본당(2120 W. 8th
St, LA, CA 90057) 문의: 626-
524-3656

▶ **우리가교회 창립 2주년 7/13**
7월 13일(주일) 우리가교회(김은광목사)는 창립 2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린다.
3435 Wilshire Blvd, Suite 570 (5층), Los Angeles, CA 90010
문의: 323-610-6989

▶ 구영순 독창회 미주평안교회
7월 19일(토) 오후 5시 미주평
안교회에서 이스라엘선교회 주
최로 구영순 독창회가 열린다.

▶선한목자교회 7/20(주일) 창립 50주년
1975년 5월 17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작은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는 7월 20일 주일 오후 4시, Chino Hills 본당에서 창립 50주년 감사예식을 진행 한다.


▶ **충현선교교회 설립 40주년**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부흥
회가 7월 18일(금)부터 20일(주
일)까지 열린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담임목
사가 18일(금) 저녁 7시30분, 19
일(토) 새벽 5시20분과 저녁 7
시, 20일(일) 예배를 이끌게 된
다.

▶제3회 평강 블레스 콘서트
평강교회는 7월 12일(토) 오후
5시 사우스 파세데나에 위치한
평강교회 본당에서 제3회 평강
블레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테
너 오위영, 소프라노 김미경, 아
영희, 김현주, 메조소프라노 원
순일, Joy여성 합창단, 셋별중앙
단 등 출연. 공연 이후 야외 마당
에서 교제의 시간.
주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문의: 213-393-9136

은혜한인교회 위십 컨퍼런스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는 7월 18일(금) 금요 성령 집회
19일(토) 오전 9시-오후 8시, 20
일(주일) 4부 예배 때 조승헌 목
사(뉴웨이교회 담임), 심오봉 전
도사를 초청해 <깊은 곳에 나아
가>라는 주제로 위십 컨퍼런스
를 연다.

등록비는 \$30이며, 점심,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 등록자는 토요일 모든 세션에 참가할 수 있으며, 금요성령 집회, 토요일 저녁 세션 등은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등록 QR CODE

살롬합창단 단원 모집
올해로 창단 35주년을 맞은
살롬 합창단(단장 조영원, 지휘
김현정)이 단원을 모집한다.
단원은 매주 목 오전 11:00-
오후 12:30 까지 가든그로브 OC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 모여 연습한다.
문의: 조영원 단장(714-351-
4499)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최요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곽찬훈 담임목사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Los Angeles One Church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3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o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모임(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학부 오후 7:30

오성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킹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수요일성경공부 낮 12:00
주일예배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모든 예배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 (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 (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킴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lifec@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00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소리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저녁기도회 오전 11:00
금요절기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수요예배 2부 저녁 언제든(요청시)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예배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후 1:00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주일예배 토요중보기도회 오전 10:30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저녁 7:30
오전 5:30 (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청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요청시)
주요예배 목요 오후 8:00(한아) / 금요 오후 8:00 (영아)
파워워십 2번주 금요 오후 8:00(영아) / 4번주 목요 오후 8:00 (한아)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김영한 칼럼

예수 죽음의 의미-대속(代贖)의 죽음(V)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상임대표

4) 포기로서의 권력: 존 하워드 요더의 해석
미국의 사회철학자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는 예수의 정치적 권력을 “포기로서의 권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요더의 입장은 벤야민의 자기 비움으로서의 신적 권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주저 「예수의 정치학」(The Politics of Jesus)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따르자고 역설한다. 요더에 의하면 예수는 윤리를 말하며 정치를 실천한다. 요더가 여기서 말하는 정치와 윤리란 유한하여 왜곡될 수 있는, 일상적 세속적 차원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는 일상적 윤리와 정치의

의미에서 권력행사를 거부하였다. 세속권력의 차원에서는 언제나 폭력이 발생하는데 예수는 이러한 폭력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추구하는 정치와 윤리란 “고통당하면서도 그런 종류의 보복을 포기하는 것”이다(John H. Yoder, The Politics of Jesus, 1972, 204, 각주 13번). 예수의 정치적 태도란 폭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멈추는 것이다. 요더는 예수의 정치와 윤리에 관하여 말한다: “...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한 거부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태도는 신약적 선포의 처음과 끝을 가로지르는 일관된 주제다.”

요더는 그가 제시하는 자기 포기의 정신을 요한계시록에서 도출한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메시지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이다. “요한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 역사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이며, 무자비한 힘이 아니라 고난이다... 의로운 자의 승리는 의로운 자들을 도우려 시도하는 무력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수행했던 이 연약함의 입장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수행하신 사역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풀어낸 것에 불과하다. 예

수가 폭력적 주인(主人) 됨 대신 고통당하는 하인(下人) 됨의 길을 선택하고, 권력으로 유지되는 정의 대신에 죽음에 이르는 사랑을 선택했던 사실 자체가 바로 그의 삶의 근본적 방향성을 드러낸 것이었다. 역사를 지배하는 모든 손잡이를 포기하셨다.”

요더에 의하면 예수는 사탄과 열심당의 시험과 정반대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 정치적 역학구조 안에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이 선고된 이유도 예수의 존재 자체가 보여주었던 새로운 정치 형태, 반폭력적 정치에 대한 거부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에 대한 포기였다. 여기서 말하는 반폭력적 정치란 단순한 평화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기 희생이요 자기 비움이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정당한 방법을 통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우리의 정당한 목적을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는 태도 자체가 어린양 승리에 찬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는 신적 지위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짊어으로써 하나님 나라 건설의 세속적 효용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신적 사랑에 헌신하였다. 그가 보여준 신적 사랑이란 초대교회가 즐겨 불렀던 그리스도 찬가(텔 2:6-

11)에 나타난 예수의 케노시스(kenosis) 행동에서 나타났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러한 그의 케노시스 행동은 단지 그가 신의 지위를 포기하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 사회에서 우러러 봄을 받는 권력을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예수가 비우신 것은 세상에 대한 주권의 포기였으며, 모든 세속적 효용성을 포기한 것이다. 이 포기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찬가의 케노시스 사상은 예수의 포기가 그리스도인 윤리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는 자기 희생과 자기 비움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자이며 인류의 대속자다. 그의 윤리와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요더가 통찰한 예수의 진정한 권력이란 자기를 포기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자기 희생이자 자기 비움의 힘이다. 진정한 권력이란 잘못된 세상 권력을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면서도 세상 권력을 획득할 수 있을 때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예수의 자기 희생이요 자기 비움의 힘이다. <계속>

강준민 칼럼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습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곤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과 실패와 갈등과 질병을 만나면 크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안전과 평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비행기는 없습니다. 비행기로 여행하면 가끔 난기류(亂氣流)를 만나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항공기 기장은 비행기가 흔들릴 때면 안전벨트 맬 것을 부탁합니다. 기장(機長)은 흔들림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조금 지나면 비행기를 흔들었던 난기류(亂氣流)가 순기류(順氣流)로 바뀝니다. 흔들리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흔들릴 때 우리는 다시 중심

을 잡습니다. 흔들릴 때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흔들릴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흔들릴 때 우리는 근본을 돌아보게 됩니다.

흔들릴 때는 흔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올 때 부러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연하게 자리를 지키는 나무가 있습니다. 부러지는 나무는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유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줄 안다는 것은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서도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나무처럼, 갈대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저는 고요함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도 흔들립니다.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저를 달래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중에 고요함을 가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흔들리는 까닭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흔들리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지혜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먼저, 흔들림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세상은 혼돈스럽습니다. 가속화된 세상은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쟁 소식과 재난 소식을 날마다 접합니다. 흔들리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길은 흔들림을 당연하게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저항하면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흔들리는 것이 이상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흔들림은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반면에 흔들림을 당연하게 여기면 흔들려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나무는 흔들리면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폭풍우가 찾아올 때, 가무는 해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가 깊으면 폭풍우가 몰려와도 나무는 잘 견뎌냅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 나무와 같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합니다(골 2:7).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엡 3:17). 뿌리 깊은 나무도 폭풍우가 몰려오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또한, 흔들림을 통해 유연함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인생의 흔들림은 유연함의 근육을 키우는 기회입니다. 고요할 때보다 흔들릴 때 진정한 유연함이 자라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함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유연함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근육 운동을 해야 합니다. 딱딱하면 부러집니다. 거칠면 부서집니다. 유연하면 부드럽습니다. 유연하면 흔들리는 순간, 민첩하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유연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연함이 강한 힘입니다. 중국의 현인은 “굵힐 줄 모르는 나무는 쉽게 부러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림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키우십시오.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실한 것을 회복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상실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소중한 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반면에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할 때 상실했던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흔들렸던 만큼, 회복은 더욱 깊고 찬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부러지지 않았습니 다. 십자가는 잠시 흔들리면서 뿌리가 더욱 견고해졌습니 다. 예수님도 거센 폭풍우에 잠시 흔들렸지만 부서지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회복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믿음은 흔들리면서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5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악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항 20회 (혈액순환)
- 훈욕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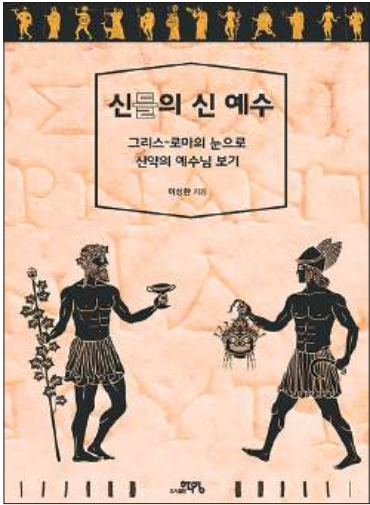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다신론 세계관에서 ‘신들의 신’ 전한 방법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존재로 이해했을까



신들의 신 예수

이상환 | 학영 | 480쪽 | 28,000원

다신론, 다종교 사회에서
예수의 복음이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전문적으로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해외 학계에서 활약하는
학자, 이상환 교수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최신의
연구와 통찰력 넘치는
논의를 따라가다보면,
어느새 신약성경이
이전과 다르게 보일 것이다
신약의 예수님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대전으로 향하는 KTX에서 저자는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다. 그분은 여호와증인에 속한 분으로, 저자가 쓰고 있는 설교 원고를 물끄러미 보고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없다는 주제로 약 30분간 이야기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아주머니는 KTX에서 내리고 만다.

언어라는 것은 시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용되는 모양새가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가 Ai 시대에 사용하는 언어는 500년 전 조선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언어였고, 조선 시대 언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선 시대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그 시대 언어와 상황, 배경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당시 문학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힘들다. 하물며 수천년 전에 기록한 성경은 어떠하겠는가?

성경도 당시 저자들이 독자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기록했을 것이다. 그 목적은 당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저자가 자신들에게 전하려는 분명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해와 배경 지식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조건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사건과 상황을 다 이해하긴 힘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어려운 이유이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제외한 세계 많은 종교는 다신론적 배경을 갖고 있다. 종교라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결핍 상태에 있는 인간을 신적 완전함을 갖고 채워 나가려는 성격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한 문화권의 신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 이것이 문화 속에 신들이 다양하게 많아지는 이유일 것이다.

『신들의 신 예수』 저자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로마 시대의 다신론적 배경 속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보다 높고 위대한 신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저자는 다신론적 관점에서 이교적 신을 버리고 ‘오직-예수-신앙’을 취하기 위해 두 가지 필요충분조건이 요구됨을 어필한다. 첫째, 예수는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둘째, 예수는 각 영역을 담당하는 이교의 신들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행함과 능력이 당시 이교도들이 믿는 신들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가 행한 기적에 대한 세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첫째 축귀, 둘째 치유, 셋째 소생과 부활이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당시 그리스-로마 시대에 문화적·종교적·사회적으로 행했던 그들의 축귀·치유·소생과 부활의 관점을 가지고 소개한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다양한 주술적·치유적 행위가 있었지만, 그들의 행위보다 예수가 행했던 축귀·치유·소생과 부활의 방법이 더 뛰어났다는 것을 변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예수가 행한 방법은 ‘즉시, 말씀, 접촉’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졌음을 어필하며, 예수의 치유는 그리스-로마 시대에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음을 가진 자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말했다. 이런 관점의 장점은 성경의 저자가 당시 1차 독자에게 하고자 했던 분명한 의도를 2차 독자인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신들의 신 예수』는 다신론적 세계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저자는 그리스-로마 시대의 다신론적 세계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배타적인 복음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했는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신들의 신 예수』는 각주를 보면 알 수 있듯 신학적·



로마 콜로세움. ©unsplash.com

역사적·철학적 도서임을 알 수 있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용에 담겨 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독자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또 한국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적 가치를 벗어나고, 무속적인 것을 통해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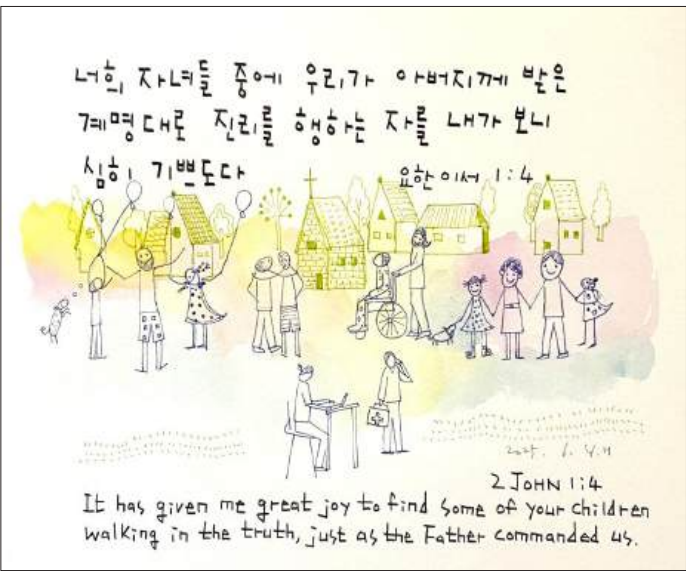
이런 현실 가운데 한국교회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들의 신 예수』가 가진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책 끝부분 에필로그에서는 대전으로 가

는 KTX 안에서 있었던 상황을 다시 기록했다.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저자와 대화를 한 아주머니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그대로 전해진다. 상상 가운데 그분과 대화하는 내용과 주제를 적었고, 그 주제가 곧 이 책의 주제였다. 복음은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는 복음을 어떤 방법과 방향성을 가지고 활용하는가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성경을 자기의 입맛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세계관과 역사를 잘 정리하여, 성경을 오역함으로써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를 결단해 본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龍谷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부제: 교회와 가정 연계를 통한 삼대 동일 신앙 세우기

삼대 동일 신앙
목회 세미나 (신6:2)
2025

 (현)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총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개혁)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포제일노회 노회장

강사 : 김경윤 총장

강의시간 안내

오전 10:00 ~ 12:00 삼대가 함께한 세대 통합 예배
오후 12:00 ~ 1:00 점심시간
오후 1:00 ~ 2:45 삼대의 기본 튼튼 신앙 세우기,
스토리가 있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
오후 2:45 ~ 3:00 Break time
오후 3:00 ~ 4:00 3년 커리 만들기

■ 날짜 : 2025년 7월 28일(월)
■ 장소 : LA소망산교회(김영호 담임목사)
3511 W Olympic Blvd #3FL, Los Angeles, CA 90019
■ 등록 : QR코드 스캔 후 등록해 주세요

주최 : 미주 기독일보, 미주 3대 동일 신앙 연구소(Three Generations Same Faith Research Center in USA)
문의 : 김영호 목사(213-590-9885), 김갑선 목사(213- 407-4524), 기독일보(213-434-1170)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씨너스: 죄인들〉 (2)

〈씨너스: 죄인들〉, 민족성과 지역색으로 비틀린 복음

토착 원시종교→ 고등종교 토착화
토착화, 원시종교 영향 기괴 변질
국악 찬양, 한옥 성전, 새벽기도…
복음에 도움 주는 토착화 있지만
올바른 복음 비트는 요인 되기도

〈씨너스: 죄인들〉에 정교하게 묘사된 1930년대 미국 남부 흑인 공동체의 종교성에서 음악 외에 눈여겨 볼 만한 요소는 주술이다. 주술은 원시종교를 지탱하는 핵심 종교 행위로서, 초월적인 힘에 기대어 인간의 삶에 깃든 고난들을 해결해 보려는 몸부림이다.

종교사회학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 현존하는 고등종교는 모두 선사시대 여러 주술적 원시종교 가운데 몇 가지가 체계적 교리와 제의, 그리고 도덕규범을 정립하며 발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소수 원시종교들이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각 나름의 공동체적,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데 탁월한 면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나와 내 가족, 친지, 그리고 부족뿐 아니라 이방인, 타민족까지 포용하는 신의 은총과 자비, 박애를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종교만이 고등종교로 발전할 수 있다는 통찰에서 비롯된다. 어떤 종교가 됐든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여전히 원시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

오늘날 세계 종교인 현황을 보면 고등종교인 4대종교(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를 믿는 이들 수가 원시종교를 믿는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원시종교의 영향력을 단순히 신도 수로만 평가할 경우 각 지역 종교인들의 종교적 삶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렵다. 고등종교 신자들 가운데 다수가 각 지역 토착신앙으로 잔존하고 있는 원시종교의 주술적 신앙 행태에 여전히 깊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종교 본래 내용이 토착 원시종교의 영향으로 기괴하게 변질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

다. 기독교 신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토착화’라고 한다.

정통 기독교 신학 연구자들과 교역자 입장에서 토착화는 한편으로 복음화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올바른 복음을 비트는 심각한 문제 요인이기도 하다.

사실 토착화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과 교회생활 어느 부분에서 토착화를 허용하고, 어느 부분에서 방지해야 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찬양이나 교회 건축 양식, 혹은 공동체 모임 형식의 토착화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복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교회의 문화적 요소는 각 문화 요소의 원래 목적을 지키는 한에서는 얼마든지 토착화가 가능하다. 한국교회의 예를 들자면 국악 형식을 빌린 찬양이나 한옥 형식 예배당 혹은 서구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새벽기도 등은 각각의 기독교적 문화요인에 배정된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형태를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

〈씨너스: 죄인들〉에 등장하는 흑인 성가대 찬송만 하더라도, 중동이나 서구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서아프리카 흑인들의 전통음악 형식을 빌린 토착화된 교회 문화 가운데 하나다. 토착화의 진정한 문제는 복음의 핵심 진리와 토착 종교의 교리 및 주술이 뒤섞일 때 발생한다. 복음의 토착화는 온갖 이단 발흥의 주된 원인이다. 예를 들어 초대 교회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였던 영지주의 기독교 이단들은 당시 그리스 문화권이었던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 복음이 토착화되면서 발생한 분파들이다.

북아메리카에 강제로 끌려온 서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신앙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백인들은 따로 번듯한 목회자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흑인들은 간혹 주일에 노예 소유주의 초청을 받은 백인 목회자들의



▲영화 〈씨너스: 죄인들〉은 1930년대 초,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극에 달했던 미시시피주에서 술집을 연 두 흑인 형제들과 뱀파이어의 전투를 주된 서사로 삼은 작품이다.

설교를 듣는 것이 신앙교육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다. 심지어 그 설교들은 노예 소유주들에게 순복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러니 부두교나 후두교처럼 토착화된 혼합종교가 탄생하는 것은 당시 흑인 노예들을 구속하고 있던 사회 구조상 당연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1692년 메사추세츠 지역에서 발생한 악명 높은 세일럼 마녀 재판 사건도 처음에는 흑인 여자노예가 기억하고 있던 서아프리카 토속 종교전통이 개신교 공동체의 어린 소녀들에게 전파되면서 시작됐다. 이는 당시 백인 개신교 공동체가 청교도 신앙을 지킨다고 하지만, 막상 흑인 노예들은 순전히 착취 대상으로만 봤을 뿐 그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소홀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강제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 거의 대다수가 이런 식의 취급을 받았다. 해리엇 비처 스톤 여사가 저술한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 나오는 것처럼, 독실한 신앙인 가정에서 그나마 충실하게 성경교육을 받은 흑인 노예는 노예제 시절의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니 이 지역에서 흑인 노예들이 기억하고 있던 아프리카 토착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기형적 혼합은 필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었다. 미국 내에서 자생한 부두교는 뉴올리언스 지역에 남아 있던 프랑스 가톨릭 교리와 서아프리카 토속 신앙이, 후두교는 미시시피 델타 지역 개신교 교리와 서아프리카 토속신앙이 혼합돼 탄생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선교지의 사회적 부조리 척결과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힘쓰는 이유 가운데는 바로 이런 토착화된 이단 발생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올바른 신앙교육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선교 사역의 결실을 맺기가 매우 어렵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선교 사역, 특히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이 당시 가장 문명화된 소

아시아, 그리스, 로마 지역에 집중된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그나마 교육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지역들이 그 지역에 전파된 복음을 순전하게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데 유리하다고 사도들이 판단했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처음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조선의 구시대적 교육 내용을 혁파하고 서구의 계몽된 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데 많은 힘을 들였다. 이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복음이 무질서하게 토착화돼, 이단이나 기괴한 혼합종교 교리로 변질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영화 〈씨너스: 죄인들〉에서 후두교는 비교적 긍정적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묘사된다. 작중 불우한 삶을 사는 흑인들을 위로하고 당면한 뱀파이어의 습격을 퇴치하는 데 효험을 보이는 후두교 주술은 대공황 당시 미국 남부 흑인 커뮤니티 고유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종교 문화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 이는 흑인들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차별, 교육기회 박탈, 그리고 그로 인한 복음의 지적 탐구 역량 약화라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토착화의 문제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교적 종교성에 의한 복음의 왜곡, 이는 토착화의 가장 위험한 폐해다.

한국 기독교 역시 이런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 유·불·선 종교 문화와 무속의 종교적 영향이 한국 기독교 내부로 침입해, 복음의 중심내용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런데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민족주의에 편승해 문제적 토착화마저 한국 기독교회의 정상적 특성으로 규정하는 우를 범한다.

복음은 민족성과 지역색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인류보편적 진리와 은혜를 전한다. 그러니 교회가 과도한 민족주의나 지역주의에 함몰되면, 대부분 문제적 토착화의 뒤틀을 피하지 못한다.



▲후두교 주술은 흑인들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차별, 교육기회 박탈, 그리고 그로 인한 복음의 지적 탐구역량 약화라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토착화의 문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성도와 교회 살아나야 나라 살고 복음통일도 이뤄”

제34차 복음통일 컨퍼런스 넷째날 일정 진행돼

제34차 복음통일 컨퍼런스(북한 구원 금식성회)가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주최로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6월 3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분단 80년,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에 7:3)’라는 주제의 이번 컨퍼런스 넷째날 일정이 3일 진행됐다. 이날 약 1,500명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전국과 해외에서 121개 교회가 ‘함께 하는교회’로서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기도 했다.

◆ “다시 거룩과 성결 회복하고 회개와 말씀으로”

이규 목사(시티미션교회)는 “구속사를 이루는 새로운 나라(렘 1:10)”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회 넷째날의 문을 열었다. 이牧사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으로 이주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어 한국이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되어가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1~2%로 미전도 종족 수준의 낮은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牧사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어려움들은 부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이 땅에 들어온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힘써야 함을 강조하며, “진정한 부흥은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과 성결을 회복하고 회개와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결단”이라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공생애로 드리기를 결단하며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 속에서 사

랑과 회생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했다.

◆ “말씀에 생명 걸고 작은 것부터 순종 결단을”

이어 문창욱 목사(큰터교회)는 ‘선교를 살리는 한국교회(약 2:14-26)’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문牧사는 “한국교회가 침체를 경험하고 있고, 선교현장도 마찬가지다. 성도와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살고 복음통일과 선교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문牧사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인용해, “하나의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한 번의 불순종은 결국 우리의 온몸을 잠식해 불순종하는 자가 되게 한다. 반면 우리의 작은 순종 또한 거저씨처럼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 선교완성을 이루는 나라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고 했다.

◆ “낙태금지법 아닌 생명보호법 제정돼야”

오후 첫 시간은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대)가 ‘생명’(마 1:18-25)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홍 교수는 예수님은 태아로 오셨으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혼전 임신함으로 인해 태아 때에 생명의 위협받는 시기가 있었다고 했다. 홍 교수는 낙태하는 이유가 △ 잘못된 정보로 인한 두려움 △다운증

후군 등 염색체 이상 △태아이상, 과도한 의료정보와 잘못된 선택 △척추 분리증과 무뇌아 등이지만 현대 의료 기술은 비정상적인 아이들을 거의 다 살려낼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또한 그는 “어떠한 태아도 98% 이상이 정상적으로 태어난다. 부모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아이를 살려낼 수 있다”면서 “이제 낙태금지법이 아니라 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심자 일어나는 두 나라는…”

이어 ‘거리생명운동 러브라이프’ 활동보고가 있었다. 학교 앞에서 생명운동을 하는 포항팀, 지하철과 강남역 등에서 활동하는 서울강남팀, ‘생명은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입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대전 탄방동팀이 사역을 보고했다. 이혜진 간사는 거리생명운동 러브라이프 사역을 소개한 후 생명존중과 러브라이프 사역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이재진 선교사(SWM Korea대표)는 ‘Understanding Islam, Loving Muslim’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 선교사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슬람의 파도를 준비해야 하며 이슬람을 이해하고 무슬림을 사랑과 복음으로 섬겨야 함을 강조했다.

이 선교사는 “이슬람의 5가지 신앙 원칙은 신앙 고백(샤하다), 하루 5번 기도(살라트), 구제(자카트), 라마



제34차 복음통일 컨퍼런스의 넷째날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

단 금식(사움), 메카 순례(하즈)가 있다”면서 “이슬람은 행위구원 종교이므로 굉장히 많은 의무사항들이 있지만 믿음의 확신이나 구원의 기쁨이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놀라운 것은 지금 이슬람권 선교를 주님께서 직접하고 있으시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심자가 일어나는 두 나라가 바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이라고 했다.

◆ “중동의 수많은 이들 주님께 돌아와”

이 선교사는 ‘이스라엘과 중동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사 19:23-25)’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전했다. 이 선교사는 “사단은 핍박과 미혹이라는 무기로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핍박 속에서 교회는 오히려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동 땅을 흔들고 계신다. 그 결과 현재 중동 지

역에서는 꿈과 환상, 계시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동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역설했다. 또한 이 선교사는 “하나님은 주의 때에 중동 땅-애굽과 앗수르와 이스라엘-을 향해 예정하신 이사야 19장의 계획을 이루시며,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열방 중에 복이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계획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초청하신다”고 그 초청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희 교수는 무슬림의 구원과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선교사와 기도사역자를 주께서 일으키시도록 기도를 인도했고, 이 교수의 제안에 이슬람권 기도선교사와 기도헌신자로 68명이 헌신하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 고령화, 사회보다 더 높고 빠르다

한국교회의 고령화 수준이 우리 사회보다 더 높고, 그 속도 또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초고령사회와 돌봄 문제’라는 주

제로 여러 통계 자료들을 9월 소개하면서 한국교회와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비교했다.

먼저 목데연이 지난 2023년 전국 만 19세 이상 4,751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연령 분포는 70세 이상이 27%로 가장 많고, 이어 60대 22%, 50대 17%, 40대 14%, 30대 11%, 19~29세 9%로 순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거의 절반인 49%였다. 같은 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나타난 일반국민들의 연령 분포는 50대가 20%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가 18%, 30대와 19~29세가 15%, 70세 이상 14%로 그 뒤를 이었다.

즉, 20대부터 50대까지는 ‘일반국민’의 비중이 ‘기독교인’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60대 이상 비중은 기독교인이 49%로 일반국민 32%보다 17%p 더 높았다.

목데연이 올해 초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자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사회봉사 영역 중 성도와 목회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영역은 ‘노인돌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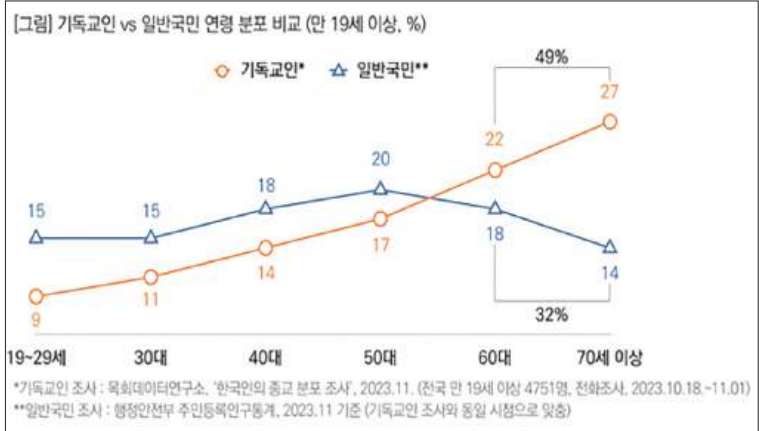
또 목데연과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안드로이드스가 지난해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교인들이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교육은 ‘노년기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가 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치매 예방과 관리’ 66%, ‘노년기 건강식 생활’ 61%, ‘우울증 예방과 극복’ 55%순이었다. 목데연은 “전반적으로 노년기 건강 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고 했다.

목데연은 “교회 내 노인 돌봄으

로는 노인 소그룹을 활성화해 여가, 영성 활동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교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령교인들과의 스킨십은 외로움, 불안 등 노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왜냐하면 고령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노인대학이나 노인 맞춤 강좌 등을 통해 지역의 비신자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며 “교회 밖 노인 돌봄 실천에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요한 기자



©목회데이터연구소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2025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썸머**캠프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다 못 보내도 백만장자로는 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재정사관학교>는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재정관 설립과 지혜로운 재정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재정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재정사관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특정한 재정개념, 돈나무 한그루씩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9시 30분에서 4시까지 진행됩니다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모든 세션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부모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참가학생 중 두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S ANGELES
WED. JULY 30
WISE CALIFORNIA FINANCE
3435 WILSHIRE BLVD., 14FL
L A, CA 90010

BREA
THUR. JULY 31
Community Center
695 Medison Way
Brea CA 92821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PRESENT

<REGISTRATION FEE \$100>
REGISTER HERE!

한국어

영어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머니토크 #영하속 토 이야기 #성경에서 배우는 재정
#손님을 섬겨 케이스 적용까지 살펴봅니다.

626.827.9599
SYMOMOONEYTALK@GMAIL.COM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기독일보

중앙일보 SYNCIS

라디오서울 BMO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TV CHOSUN

朝鮮日報
창간 105주년
미주조선일보LA
창간 6주년

TOP7 LIVE IN LA

미스터트롯3

추길

손빈아

김용빈

추혁진

천록담

남승민

최재명

2025. 8. 24(일) 2PM, 6:30PM

WILSHIRE EBELL THEATRE 월셔 이벨 극장

TICKET OPEN

chosunticket.com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LA

티켓 예매 (213)459-6800 | (213)315-5177

미스터트롯3

Top7과 떠나는 크루즈여행
8월 25일<월> ~ 29일<금> 4박 5일

손빈아

천록담

김용빈

추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SHOW. SHOW. SHOW.

미스터트롯 선상 갈라쇼, 멕시코 전통쇼, 탈렌트쇼

“푸짐한 경품잔치”

CARNIVAL RADIANCE

탈렌트쇼&가라오케쇼

멕시코 문화센터
마리아치밴드와 민속공연 관람

선상 스페셜이벤트 (오후)

미스터트롯3 프리미엄 선상 공연

다양한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항공권, 마사지체어, 알래스카 크루즈 등)

▶요금: 오션뷰 \$1,799
발코니 \$1,999

▶포함: 4박 5일 크루즈 비용, 세금일체(포트세, 정부세), 기항지 투어(2일) + 프라이빗쇼 관람 및 행사, 크루즈 보험
*1인당/ 2인1실 기준 *예약시 완납, 캔슬시 패널티 적용

여행의 명문 -
et ELITE TOUR

엘리트투어

213·386·1818
745 S Oxford Ave. 1F, Los Angeles, CA 90005
www.EliteTourUS.com email: info@elitetourus.com